

생애 주거경험과 노후 주택에 대한 태도

A study on the lifetime housing experience and the Attitudes for Housing in one's old age

강혜경*

조성희**

Kang, Hye-Gyoung

Cho, Sung-Heu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fetime housing experience and the attitudes for housing in one's old age. For this,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experience from the first housing after marriage to present housing and estimated the attitudes for housing in one's age in the future. The survey through interview has been conducted from 89 respondents with questionnaire during October to November, 2004. Frequency, Crosstabs were obtained from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WI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experience according to each stage of lifetim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housing movements showed the difference in the housing preference in one' old age.

Keywords: lifetime housing experience, housing in one's old age,

주 제 어 : 생애 주거경험, 노후 주택

I. 서 론

인간의 일상은 주택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주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택관련 연구는 행태, 동선, 요구등과 관련한 합리주의적 관점의 계획적 측면이 강조되어, 진솔한 삶의 공간으로서 체험과 기억의 의미가 강조되는 고찰이 부족하여왔다. 최근, 일상의 많은 시간을 주택에서 보내는 노인주택과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는 일생 동안의 주거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 노후 주택에서의 거주경험이 노인들의 질적 삶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결혼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신혼집에서 현재의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다양한 주거경험을 하게 된다. 즉, 주거는 개인 경험의 저장소이며 가족의 사회문화적 산물이 된다. 따라서 이전의 생애 주거경험은 이후에 그가 선택할 주택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Rubinstein(1989)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인적인 애착은 그 환경이 그가 종전에 거주하던 주거환경과 사용목적이나 시각적인 자극이 유사할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환경행태이론가인 Kahana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 특성과 조화를 이루면 적응이 긍정적으로

일어난다는 조화이론을 제시하였기도 하였다¹⁾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거경험²⁾을 파악하고 이후 노후의 주거생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후 신혼집에서 중년기의 현재 주택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거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를 파악하고, 미래 노후 주거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노인주택을 디자인함에 있어 지속가능하고, 문화적이고 또한 경험적인 실체의 정서적 공간으로 노인주택을 디자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II. 연구방법

1.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인간은 일생동안 집을 통하여 주택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한다. 과거로부터 현재주택에 이르기까지 개별 가구의

1) 개인의 욕구는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과거와의 연속성, 개성의 표현, 질서와 조직, 사회화로 보았다(신영주, 2001, P142 재인용).
2) 생애 주거경험은 주택이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후 신혼주택에서부터 성인자녀를 둔 현재 주택에 이르기까지 각 가구가 거주한 주택의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주거경험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생애주기 개념과 연계하여 각 단계의 주거경험을 생애 주거단계로 구분 정의하였다.

* 정희원,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박

** 정희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박

주택에 대한 경험은 어떠하며, 이러한 생애 주거경험은 노후 주거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성인자녀(첫 자녀 연령 20세 이상)를 둔 중년가족을 대상으로 신혼 주택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 주거경험과 노후 주택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담방식으로, 주거 관련강의를 통해 주거경험과 노인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형성한 부산시 소재 3개 대학³⁾ 학부생들이 자기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 주거경험을 면담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10월에서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질문지는 모두 120부를 배포하여 98부를 수거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면담과 응답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89부를 사용하였다. 이 중 신혼주택에서 현재주택까지 주거이동에 따른 주거특성을 모두 기록한 응답한 질문지는 44부였다. 따라서 조사도

구의 구성에 있어 생애 주거경험은 <표 1>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WIN 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가구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M=51.5세) 및 주부(M=48.4세)의 연령이 40-50대로 중등교육기의 생애 주거경험 단계에 속하는 가구로 파악되었다. 가구의 사회적 특성은 고졸학력에, 가장의 직업 분포가 행정/사무직/기술직의 고용직(45가구, 53.6%)과 자영업(39가구, 46.4%)의 월 평균소득 201만원-300만원(38.2%)과 30만원1-400만원(27.0%)에 속하는 가구로 파악되었다.

III. 분석결과 및 논의

1. 생애 주거 경험

우선, 결혼에서 현재 생애 4단계의 자녀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주거경험들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들 경험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별 특정 시점의 주택에 대한 조사로, 신혼주택과 내집 마련 주택과 현재 주택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표 3><표 4>.

대개 신혼주택은 20평 규모의 방 2개짜리 단독주택에서 전세로 시작하여 5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내집 마련은 결혼 후 평균 9년을 전후하여 30평 규모의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조금 더 선택하여 평균 9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신혼 주택은 직장 근처, 재테크, 교통, 그리고 친인척/시댁의 순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내집 주택은 교육, 좋은 환경, 교통, 그리고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가구 특성	월 평균소득, 자녀구성, 부부건강 부부(연령, 직업, 학력, 종교유무)
생애 주거경험 1 (N = 89)	현재 주택- 유형, 규모, 거주기간, 내집 마련- 유형, 규모, 거주기간,마련기간
생애 주거경험 2 (N = 44)	주택 유형경험(아파트/단독 10년이상 거주) 주거 이동경험 (주거 이동횟수) 주거 정착경험 (내집마련 생애단계)
노후 주거생활	노후 경제생활 노후 주거생활 노후 살고 싶은 주거환경 노후 중요한 주거 공간

<표 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가구 특성	구분	빈도(%)	가구 특성	구분	빈도(%)
부부 건강	부부건강	29(32.6)	자녀 구성	동성자녀	36(40.5)
	보통	46(51.7)		여성자녀	53(59.6)
	부부불편	14(15.7)			
가장 학력	고졸이하	59(66.3)	주부 학력	고졸이하	74(83.1)
	대졸이상	30(33.7)		대졸이상	15(16.9)
가장연령 (M=51.5)	50세이하	40(44.9)	주부연령 (M=48.4)	50세이하	68(76.4)
	51세이상	49(55.1)		51세이상	21(23.6)
가장 직업	고용직	45(53.6)	주부 직업	취업주부	35(39.3)
	자영업	39(46.4)		전업주부	54(60.7)
가장 종교유무	종교無	34(38.6)	주부 종교유무	종교無	23(26.1)
	종교有	54(61.4)		종교有	65(73.9)
월소득	200미만	13(14.6)	월소득	301-400	24(27.0)
	201-300	34(38.2)		401이상	18(20.2)

3)부산시 소재 3개 대학 학부생들은 주거환경학과, 가정관리학과 의 학부학생들로 본인의 주거 관련 전공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3> 생애 주거 경험 1 N=89

변인	항목	신혼주택	내집 주택	현재주택
주택유형	단독	57(64.8)	30(35.7)	23(25.8)
	아파트	12(13.6)	46(54.8)	29(66.3)
	연립기타	20(21.6)	8(9.5)	7(7.8)
	소계	89(100)	84(100)	89(100)
소유형태	자가	10(11.4)	마련기간	79(88.8)
	전세	46(52.3)	M = 9.32	10(11.2)
	소계	기타	SD = 4.87	89(100)
거주기간	M(SD)	4.89 (4.49)	8.96 (5.65)	7.82 (6.14)
주택규모	M(SD)	19.27 (10.1)	29.52 (10.6)	39.6 (14.9)
방 수	1R	26(30.2)	-	-
	2R	36(41.9)	17(20.5)	3(3.4)
	3R	18(20.9)	48(58.7)	50(56.2)
	4R	기타	13(15.7)	27(30.3)
	M(SD)	2.10 (1.10)	3.08 (0.82)	3.51 (0.83)
만족도	M(SD)	3.24 (0.86)	3.28 (0.76)	3.18 (0.45)

직장 근처 등의 순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

히, 신혼기의 시대에 대한 고려나 내집 마련에서 넓은 주택에 대한 고려 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주택에 대한 고려점이 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성인기 자녀를 둔 현재 주택은 평균 40평 정도의 자가 형태로 방의 수 3개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으로 생애 주거경험이 진행됨에 따라 주택규모나 방의 수, 그리고 자가 비율이 더 증가하였으며, 주택유형도 단독에서 아파트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생애 주거 선택시 고려사항

	직장 근처	재테크	교통	교육	좋은 환경	친인척/시대	넓은 주택	주택 내부등	주택 외부등
신혼주택	36	17	16	2	3	12	-	9	6
내집주택	8	6	11	12	12	-	6	4	4

* 자유응답 N= 89

한편, 생애 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주거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 이동경험과 이주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표 5>, 생애 주거단계별 주거이동의 동기를 살펴보면, 넓은 주택, 직장 근처, 좋은 환경은 생애 주거 이동의 주된 동기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을 전후하여 주거 이동 동기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미취학기는 분가와 재테크, 중고등기는 교육이 중요한 이주동기로 작용하였음을 파악하였다.

<표 5> 생애 주거경험의 단계에 따른 주거이동 동기

	미취학기	초등기	중고등기	성인기
이주횟수(M)	61회(1.39)	44회(1.0)	26회(0.59)	12회(0.27)
직장 근처	12	7	4	2
좋은 환경	6	8	2	2
재테크/경제성	5	1	1	1
분가	8	1	-	-
넓은 주택	17	13	8	1
내집 마련	5	3	2	-
교통	1	3	1	-
교육	2	3	4	1
친인척	1	4	1	-
아파트분양	-	-	1	3
기타	1	-	1	-
소 계	56	43	25	10

* 자유응답 N= 44

또한 누적된 생애 주거경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혼주택 이후 주거 이동에 따른 주거경험 특성을 모두 응답한 44 가

구에 대한 주택 유형경험⁴⁾, 주거 이동경험⁵⁾ 그리고 주거 정착 경험⁶⁾을 분석하였다<표 6>. 주택 유형은 단독과 아파트에서의 거주경험 10년 이상의 경우가 비슷한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주거 이동경험은 신혼 주택에서 현재의 생애 4단계인 자녀 성인기까지 평균 3.66회 정도 이주하였으며, 내집 마련의 주거 정착경험은 생애 2단계(M=47.5)와 생애 1단계(M=37.5)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생애 주거 경험 2

N=44

	구분	빈도(명)	백분율(%)
주택 유형경험	단독	18	47.4
	아파트	20	52.6
주거 이동경험 (M=3.66)	3회 이하	15	34.1
	4회 이상	29	65.9
주거 정착경험	생애 1(미취학기)	15	37.5
	생애 2(초등기)	19	47.5
	생애 3(중고등기)	6	12.5
	생애 4(성인기)	1	2.5

2. 노후 주택에 대한 태도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생활과 관련한 태도를 살펴보면 <표 7><표 8>, 경제 생활은 연금자립생활과 직업/노동에, 주거 형태는 자녀거거리와 노부부 독립생활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거환경으로 현재 거주하는 지역내 보다 편리한 주택으로 이동하거나 고향이나 정든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노후 더욱 중요시 되는 주택공간으로는 거실의 사회적 공간과 침실, 서재의 개인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 노후 주거생활에 대한 태도 1 N=89

노후 경제 생활	연금자립	연금+자녀	자녀의존	직업/노동	기타	소계
	37(41.6)	11(12.4)	1(1.1)	37(41.6)	3(3.4)	89(100)
노후 주거 형태	노부부 독립생활	자녀동거	자녀 근거리	노년층과	친인척/친구와	소계
	36(40.4)	9(10.1)	37(41.6)	2(2.2)	5(5.6)	89(100)

4) 신혼 주택 이후 현재 주택까지 주택 유형경험에서 아파트와 단독 거주경험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로 주거 유형경험으로 분류하였다.

5) 신혼주택 이후 현재 주택까지 이동한 주택의 횟수를 주거이동 경험으로 보고, 평균(M=3.66)을 기준으로 주거이동경험을 3회 이하와 4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6) 내집 마련의 자가 거주경험이 주거 안정감을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주거 정착경험으로 정의하였으며, 내집 마련의 시기가 생애 주거경험의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주거 정착경험을 분류하였다.

<표 8> 노후 주거생활에 대한 태도 2 N=89

노후 주거 환경	현주택	현주택 개조	지역내 편리주택	고향/정든곳	노인 주거단지	기타	소계
		10(11.6)	6(7.0)	37(43.0)	21(24.4)	9(10.5)	3(3.5)
노후 중요 공간	개인 공간	사회적 공간	가사 공간	서비스 공간	수납/통로	기타	소계
	33(37.5)	36(40.9)	9(10.2)	6(6.8)	2(2.3)	2(2.3)	88(100)

3. 생애 주거경험에 따른 노후 주택

과거 주거경험이 미래 노후 주택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생애 주거경험에 따른 노후 주거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 결과<표 9>, 생애 주거경험과 가구특성에 따라 노후 주거생활에 있어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노후 주거생활에 있어서는 주부학력에 따라,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환경과는 현재주택의 유형과 거주기간, 그리고 생애 주거 이동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노후 생활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주택공간은 주부종교, 가장직업, 자녀구성과 현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9> 노후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가구 특성				생애 주거경험		
	주부 학력	주부 종교	가장 직업	자녀 구성	현주택 유형	현주택 거주기간	주거 이동경험
노후주거형태	○						
노후주거환경					○	●	○
노후중요공간		●	○	○		●	

* 카이스퀘어 검증 : 현재 주택(유형/규모/거주기간), 내집 마련(유형/규모/거주기간/마련기간), 부부(자녀구성/월 소득/건강/연령/학력/직업/종교) * ● p <.001; ○ p <.01; ○ p <.05

우선, 노후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주부학력에 따라 노후 주거형태에, 주부종교, 가장직업, 그리고 자녀구성에 따라 노후 중요한 주택공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0><표 11>. 특히, 노후 중요공간과 관련하여 동성의 자녀를 두고 가장의 직업이 고용직이며 주부의 종교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공간을 중시여기고, 여성의 자녀, 가장의 직업이 자영업이고 주부 종교가 있는 가구는 개인적 공간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노후 주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N= 89

주부 학력	노부부 독립생활	자녀동거 /근거리	노년층/친인척과	χ ² 검증
	고졸이하	31(41.9)	40(54.1)	
대졸이상	5(33.3)	6(40.0)	4(26.7)	

<표 11> 노후 중요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N= 89

		개인 공간	사회적 공간	비거주 공간	χ ² 검증
		주부 종교	종교 無	2(9.1)	
	종교 有	30(46.2)	21(32.3)	14(21.5)	
가장 직업	고용직	10(22.2)	24(53.3)	11(24.4)	χ ² = 7.142 P < .05
	자영업	19(50.0)	12(31.6)	7(18.4)	
자녀 구성	동성자녀	8(22.9)	19(54.3)	8(22.9)	χ ² = 5.908 P < .05
	이성자녀	25(47.2)	17(32.1)	11(20.8)	

생애 주거경험에 따른 노후 주거생활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12>, 노후 살고 싶은 주거환경은 대개 현재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보다 편리한 주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현재주택이 단독이고,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으로 길면, 그리고 주거이동 경험이 3회 이하(평균 이하)이면, 노후에도 현재주택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현재 아파트이고 주거 이동경험이 4회 이상(평균이상)인 경우 고향/정든 곳이나 노인주거단지로도 다소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하거나 16년 이상이면 노후의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개인공간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3>.

<표 12> 노후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 주거경험

		현재주택 /개조	지역내 편리주택	고향/정든곳	노인 주거단지	χ ² 검증
		현주택 거주 기간	1-5년	6(17.6)	12(35.3)	
6-10년	1(3.8)		15(57.7)	5(19.2)	5(19.2)	
11-15년	1(8.3)		6(50.0)	2(16.7)	3(25.0)	
16년이상	6(60.0)		2(20.0)	2(20.0)	0(0)	
현주택 유형	단독	7(33.3)	9(42.9)	5(23.8)	0(0)	χ ² = 8.37 P < .05
	아파트	7(11.9)	25(42.5)	15(25.4)	12(20.3)	
주거 이동 경험	3회이하	5(38.5)	6(46.2)	1(7.7)	1(7.7)	χ ² = 8.359 P < .05
	4회이하	2(7.1)	11(39.3)	9(32.1)	6(21.4)	

N=89(현주택 거주기간, 현주택 유형), N=44(주거 이동경험)

<표 13> 노후 중요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 주거경험 N= 89

		개인 공간	사회적 공간	비거주 공간	χ ² 검증
		현주택 거주 기간	1-5년	15(44.1)	
6-10년	7(25.9)		14(51.9)	6(22.2)	
11-15년	1(7.7)		6(46.2)	6(46.2)	
16년 이상	8(80.0)		1(10.0)	1(1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혼주택에서 현재의 성인자녀기에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는 동안 경험한 주거특성을 생애 주거경험으로 보고, 이러한 주거경험이 이후의 노후 주택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생애 주거경험과 노후 주거생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 주거경험이 진행됨에 따라 주택규모나 방의 수, 그리고 자가 비율이 더 증가하였으며, 주택유형도 단독에서 아파트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생애 주거경험에서 넓은 주택, 직장 근처, 좋은 환경은 생애 주거 이동의 주된 동기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내집 마련을 전후하여 미취학기는 분가와 재테크, 중고등기는 교육이 중요한 이주동기로 작용하였음을 파악하였다.

셋째, 노후 주거생활은 경제적으로는 연금자립생활과 직업/노동, 주거 형태는 자녀근거리와 노부부 독립생활을, 주거환경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내 보다 편리한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노후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은 주부학력에 따라 노후 주거형태에, 주부종교, 가장직업, 그리고 자녀구성에 따라 노후 중요한 주택공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노후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생애 주거경험은 현재 주택의 유형과 거주기간, 그리고 생애 주거 이동경험에 따라 노후에 살고 싶은 주거환경이, 주부종교, 가장직업, 자녀구성과 현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노후 생활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주택공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과거 주거경험이 미래 노후 주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생애 주거경험을 파악하고 노후 주거생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였다. 그러나 주거경험과 노후 주거생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영주(2005), 미국 노인보호주택 거주자들의 집으로서의 속성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권 4호.
2. 전경화, 홍형욱(2004), 노인주택 계획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1호.
3. 서은미, 홍형욱(2004), 중년층의 노후의 주거문제에 대한 태도와 노인공동생활주택에의 입주 의사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6호.
4. 신영숙(2002), 내 집과 같은 노인시설주거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III), 대한가정학회지, 40권 9호.
5. -----(2001), 선호하는 유료 노인시설주거 디자인을 위한 중산층의 집에 대한 개념,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2호.
6. 홍형욱(2001),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태도와 선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권 5호.